

고려 <청산별곡>과 조선 <강보>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Cheongsanbyeolgok* in Goryeo Dynasty and Gangbo in Joseon Dynasty

정경란
한국학중앙연구원

Kyung Rhan Chung(chung311@aks.ac.kr)

요약

<청산별곡(靑山別曲)>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이며, <강보(降寶)>는 조선 세종이 종묘, 조회, 공연에 사용하기위해 새로 창제한 <발상(發祥)> 11곡 중의 한 곡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의하면 <발상>은 고취악과 향악에 의하여 창제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기록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발상> 중 <강보>가 고려 향악인 <청산별곡>에 근거하여 창제되었음을 밝힌 논문이다.

<강보>와 <청산별곡>의 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48행의 <강보>는 10행의 <청산별곡>을 세 번 반복하였는데, 즉 <강보>의 1-16행, 17-32행, 33-48행에서 <청산별곡>이 세 번 반복하여 발췌되었고, <청산별곡>과 <강보>의 선율은 거의 같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세종 때 <발상> 중의 <강보>가 고려 향악인 <청산별곡>을 발췌하여 신악(新樂)으로 창제되었음을 이 연구에서 밝혀냈다.

■ 중심어 : | 발상 | 강보 | 청산별곡 | 세종실록악보 | 시용향악보 |

Abstract

Chongsanbyeolgok is one of Goryeo songs which might be composed in Goryeo dynasty, the composer of which is not known as well as other Goryeo songs. Balsang songs is structured with eleven songs that has been composed newly by King Sejong in Joseon Dynasty for using at Jongmyo (royal ancestral shrine), Johoe (royal audiences), performance, Gangbo is one of 11 songs in Balsang. In Sejongsillok, it is written that Balsang was composed by taking the melody and rhythm of gochwiak (proceSSIONAL music) or hyangak. Thus, it is interesting to know how gochwiak and hyangak, especially Chongsanbyeolgok affected structure and rhythm of Gangbo.

As an analytical result of Gangbo and Chongsanbyeolgok, Gangbo consisted of 48 Haeng(line) repeated Chongsanbyeolgok's melody (10 Haeng) by three times. That is, 1-16, 17-32, and 33-48 Haeng of Gangbo excerpted from Chongsanbyeolgok's melody, and those melodies of Gangbo are same or similar to Chongsanbyeolgok. In this report, Gangbo, one of Balsang's musics in Joseon Dynasty is proven to be excerpted from the melody of Chongsanbyeolgok in Goryeo Dynasty and repeated.

■ keyword : | Balsang | Gangbo | Cheongsanbyeolgok | Sejongsillok-akbo | Siyonghyang-akbo |

* 본 논문은 한국콘텐츠학회 2013 춘계 종합학술대회 우수논문입니다.

접수일자 : 2013년 06월 21일

수정일자 : 2013년 09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9월 12일

교신저자 : 정경란, e-mail : chung311@aks.ac.kr

I. 서론

<청산별곡(靑山別曲)>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로 『악장가사(樂章歌詞)』[1]와 『악학편고(樂學便考)』[2]에 악보 없이 8연의 가사가 전하고,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3]에 악보와 함께 가사 제1연이 전한다.

<청산별곡>은 고려 때의 무가인 <대국(大國)>과 동일한 곡으로 언급하기도 하였고, 1393년(태조 2년)에는 정도전(鄭道傳)이 <청산별곡>을 발췌하여 <납씨가(納氏歌)>를 만들었다고 하였다[4]. 조선 세종 때에는 평조의 <청산별곡>을 계면조로 고쳐서 <정대업(定大業)> 중의 <휴명(休命)>이 만들어지고, <휴명>은 다시 세조 때 남려궁에서 청황궁으로 바뀌어 <총유(寵綏)>로 전승된다[5]. 세조 때에는 10행의 <청산별곡>에 2행을 첨가하여 12행의 <경근지곡(敬勤之曲)>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6].

이처럼 고려의 <청산별곡>은 고려의 <대국>, 조선의 <납씨가>·<휴명>·<총유>·<경근지곡> 등에서 선율이 발췌되거나, 조(調)가 바뀌고, 악곡의 길이가 증가되는 등 다양하게 변모되어 전승되었다.

또한 조선 세종 때의 <발상(發祥)>은 조상(祖上)이 하늘에서 내린 상서(祥瑞)를 받았다는 것을 노래와 춤으로 나타낸 무곡(舞曲)으로 모두 11곡으로 이루어졌고, 남려(南呂)를 중심음으로 하는 평조이다[7]. <발상>의 11곡은 <희광(熙光)>·<순우(純佑)>·<창부(昌符)>·<영경(靈慶)>·<신계(神啓)>·<현휴(顯休)>·<정희(禎禧)>·<강보(降寶)>·<응명(凝命)>·<가서(嘉瑞)>·<화성(和成)>이며, <강보>는 여덟 번째 곡이다.

세종은 고취악과 향악에 인하여 신악(新樂)인 <정대업>·<보태평(保太平)>·<발상>·<봉래의(鳳來儀)>를 창제하였고[8], 실제 <정대업> 과 <보태평>의 악곡들 중 <순응(順應)>은 <만진춘(滿殿春)>에서, <화태(和泰)>는 <서경별곡(西京別曲)>에서, <형광(亨光)>은 <귀호곡(歸乎曲)>에서, <보예(保父)>는 <야심사(夜深詞)>에서, <융화(隆化)>는 <풍입송(風入松)>에서 발

췌하여 세종의 신악으로 창제되었음이 연구된 바 있다[5]. 그러나 <발상>과 고려 향악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9][10], 이 연구에서는 <발상> 중 <강보>가 고려 향악인 <청산별곡>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 창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시용향악보』에 수록된 <청산별곡>과 『세종실록악보』에 수록된 <강보>의 선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청산별곡>과 <강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II. 청산별곡, 발상, 강보의 개요

2.1 청산별곡의 개요

<청산별곡>의 제작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고려후기로 알려져 있으며, 작자에 대해서도 귀족계급, 농민, 유민, 농민반란군, 관기나 관노, 평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추정되었다[표 1].

표 1. <청산별곡>의 창작연대 및 유행시기와 그 추정근거 [11]

연구자	창작연대 및 유행시기	근거
장지영	고려시대 중기 이후 말기 사이	情調의 순진함과 詞格의古朴함으로 보아
김택규	12세기 초 이후	새로 들어온 가락에 맞추어 새 가락과 새 사설을 변용시킨 것
이동근	인종 대	이자겸의 반란(1126), 묘청의 난(1135) 때 문운을 경험한 자의 창작
김연중	의종 연간	의종세가와 열진의 宦者傳 婁幸傳
서수행	고종(1216~1259)조 전후 늦어도 이계현의 소악부 성립 시기(1342) 이전	내용·형식·사회적 배경으로 유추
박노준	몽고족의 2차 내침이 있던 고종 19년(1232) 이후 고종 44년(1257) 사이	몽고족의 침입으로 徙民山城海島의 명을 내려 향몽전이 시작되었기에
최기호	몽골의 제1차 일본정벌(1274)보다 3년 전인 1271~1281년 전후	몽골이 일본정벌을 위하여 전함을 만들 때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
임주탁	강화도 천도 시기	'노민자기'란 말이 강화를 포함한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 쓰임으로 보아
김행기	1280~1282년. 충렬왕 7년(1281) 전후	노래 속에 그러한 풍경이 1274년 및 1279~1280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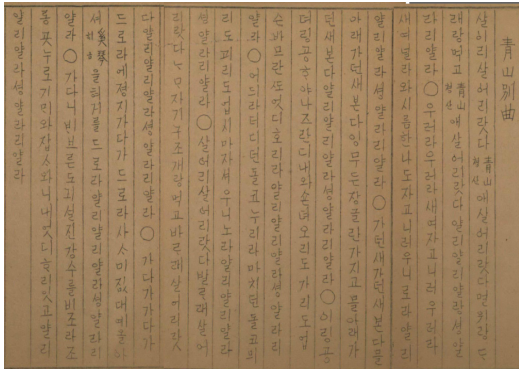
『악장가사』에는 악보 없이 <청산별곡>의 가사만 모두 8연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가사와 원문은 [표 2], [표 3]과 같다.

1 『世宗實錄』 138권. 1a2-4: “國朝鼓吹樂曰 愛寶錄 夢金尺 觀天庭 受明命 皆各主一事 未足以形容 祖宗功德之盛大 締造之艱難 世宗因鼓吹樂 及鄕樂創爲新樂曰 定大業 保太平 發祥 鳳來儀 今謹錄云”

표 2. 『악장가사』의 <청산별곡> 가사

구성	가사
1연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2연	우러라 우러라 새어 자고 니러 우러라 새어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3연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4연	이랑공 더령공 허야 나즈람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5연	어딴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져 우니노라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6연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래 살어리랏다 늑막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락래 살어리랏다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7연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허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8연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띄와 잡스오니 내 엇디 호리잇고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표 3. 『악장가사』의 <청산별곡>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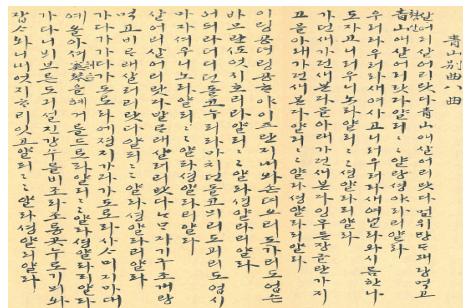


『악학편고』에도 『악장가사』와 마찬가지로 <청산별곡>의 8연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가사와 원문은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악학편고』의 <청산별곡> 가사

구성	가사
1연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2연	우러라 우러라 새어 사고 니러 우러라 새어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3연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4연	이랑공 더령공 허야 이즈란 지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5연	어딴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져 우니노라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6연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락래 살러리랏다 늑막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락래 살러리랏다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7연	가다가 가다가 도로라 예정지 가다가 도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奚奚허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8연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띄와 잡스오니 내 엇디 호리잇고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표 5. 『악학편고』의 <청산별곡>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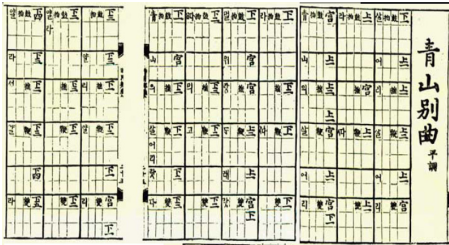


또한 『시용향악보』에는 악보와 함께 <청산별곡>의 가사 제1연만 실려 있다. 『시용향악보』의 <청산별곡>은 평조이고, 16정간 1행의 10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사와 악보는 [표 6], [악보 1]과 같다.

표 6. 『시용향악보』의 <청산별곡> 가사

구성	가사
1연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의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따먹고 靑山의 살어리랏다 알리 알리 알라 알랑성 알라

악보 1. 『시용향악보』의 <청산별곡> 악보



<청산별곡>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국>, 조선의 <납씨가>, 세종 때 정대업 중의 <휴명>, 세조 때 <총유>, <경근지곡>과 선율 상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2.2 발상의 개요

<발상>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에 처음 나온다. 세종 29년(1447년) 6월 4일 기록에는 “상서(祥瑞)의 감응된 바를 취재(取才)하여 따로 한 가지 곡조를 지었는데, 이름을 ‘발상(發祥)’이라 하여, 악보 1권이 있었다”²고 하였다.

또한 세종 31년(1449년) 10월 3일 기록에는 “종묘(宗廟)·조회(朝會)·공연(公宴)의 음악에 전조(前朝)의 잡성(雜聲)을 엮어 넣음은 심히 타당하지 못하오니, 지금 새로 정한 제악(諸樂)과 구악(舊樂) 안에서 쓸 만한 여러 소리[諸聲]를 다시 더 산정(刪定)하게 하시되, 발상 정재(發祥呈才) 11성(聲), 정대업 정재(定大業呈才) 15성, 보태평 정재(保太平呈才) 11성, 봉래의 정재(鳳來儀呈才) 5성, 외양선 정재(外羊仙呈才) 6성, 포구락 정재(拋毬樂呈才) 4성, 연화대 정재(蓮花臺呈才) 4성, 처용 정재(處容呈才) 3성, 동동 정재(動動呈才) 1성, 무애 정재(無導呈才) 1성, 무고 정재(舞鼓呈才) 3성, 향발 정재(響鉞呈才) 1성과 제악(祭樂)으로 초헌(初獻) 1성, 아헌(亞獻) 1성, 종헌(終獻) 1성과 여민락만(與民樂慢) 1성, 치화평중(致和平中) 2성, 진작 사체(眞勺四體) 4성 등 합계 75성(聲)으로써 항상 예습(隸習)하게 하옵소서”³라

2 『世宗實錄』 116권 22a : “又取瑞應 別作一舞 號發祥 有譜一卷”

3 『世宗實錄』 126권 2a : “庚戌/議政府據禮曹啓申 宗廟、朝會、公宴之樂、掇拾前朝雜聲、深爲未便。今新定諸樂及舊樂之內、可用諸聲、更加刪定。《發祥》呈才十一聲、《定大業》呈才十五聲、《保太平》呈才十一聲、《鳳來儀》呈才五聲、《外羊仙》呈才六聲、《拋毬樂》呈

고 하여 <발상>을 종묘, 조회, 공연의 음악에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세조 6년(1460년) 4월 22일 기록에는 “지금부터 정대업(定大業)·보태평(保太平)·발상(發祥)·봉래의(鳳來儀)의 신악(新樂)을 익히고 구악(舊樂)을 다 폐지하라”⁴하여 세조 때에는 <발상>과 같은 신악을 익히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송방송은 <발상> 정제가 전승되지 않은 이유로 <발상> 11곡의 내용이 <보태평> 11곡이나 <정대업> 15곡과 비슷하므로, <보태평>·<정대업>의 정재공연으로 충분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하였다[9].

<발상>은 세종 29년(1447년)부터 세조 6년(1460년)까지의 기록에만 나오고 음악도 전승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종 때 창제되어 세조이후 언제까지 전승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대악후보』나 『악학궤범』 등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직 『세종실록악보』에서만 악곡을 찾아볼 수 있다.

2.3 강보의 개요

<강보(降寶)>는 <발상>의 11곡 중 여덟 번째 곡이다. <강보>는 태조(太祖)의 잠저(潛邸) 때에, 어떤 중이 이상한 글을 바치면서, 지리산 바위 속에서 얻었다고 하는데, 그 글에 “목자(木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삼한(三韓)의 땅을 바로잡으리라”고 하는 귀절이 있었다는 것을 노래한 것으로, 이런 이야기는 용비어천가 제86 <여섯노루> 장에도 나오고, 또 태조(太祖) 5년에 정도전(鄭道傳)이 바친 수보록(受寶錄)에도 보인다[7].

『세종실록악보』에 수록된 이 곡의 음계는 남려(南呂)·응종(應鐘)·태주(太簇)·고선(姑洗)·유빈(蕤賓)의 5음 음계이며, 선법은 남려궁 평조이다. 4언절구의 한문 가사에서 박(拍)이 4언 1구마다 한 번씩 규칙적으로 사용된다. 32정간의 1행의 총 24행으로 이루어졌고, 16정

才四聲、《蓮花臺》呈才四聲、《處容》呈才三聲、《動動》呈才一聲、《無導》呈才一聲、《舞鼓》呈才三聲、《響鉞》呈才一聲、《祭樂》初獻一聲、亞獻一聲、終獻一聲、《與民樂》漫一聲、《致和平》中二聲、《眞勺》四體四聲、凡七十五聲、常令隸習”

4 『世祖實錄』 20권 14b : “自今肄《定大業》、《保太平》、《發祥》、《鳳來儀》新樂而盡廢舊樂”

악보 14. <강보> 15-16행과 <청산별곡> 10행 제1정간-제13정간의 선율비교

강보 15-16행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약보로 바꾼 악보	德 德 下四 下四
청산별곡 10행 제1정간-제13정간 (시용향악보)	下四下三下二下三下四

<강보>의 1행부터 16행까지는 <청산별곡>의 3행부터 10행까지를 간헐적으로 한번 연주하였다. 다시 <강보>의 17행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강보>의 17-20행은 ‘上一’과 ‘上二’가 반복되는 선율을 <청산별곡>의 1-2행의 선율과 많이 유사하다. <강보> 17-20행의 선율이 ‘應汰汰應應(오음약보로는 上一上二上二上一上一)’으로 <청산별곡> 1행 제4정간부터 2행 제3정간까지의 ‘上一上一上二上一宮上一’의 선율 중 “宮”을 제외한 ‘上一上一上二上一’의 선율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악보 15][악보 16].

악보 15. <강보> 17-20행과 <청산별곡> 1-2행의 악보 비교

강보 17-20행 (세종실록악보)	應 汰 汰 應 應
청산별곡 1-2행 (시용향악보)	上一 上一 上二 上一 上一 上二 上一 上一

악보 16. <강보> 17-20행과 <청산별곡> 1-2행의 선율비교

강보 17-20행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약보로 바꾼 악보	應 汰 汰 應 應 上一 上一 上二 上一 上一
청산별곡 1-2행 (시용향악보)	下一 上一 上一 上二 上一 宮上一 宮上一 上一

<강보> 21-22행의 ‘南應汰應南(오음약보로는 宮上一上二上一宮임)’의 선율은 <청산별곡> 3행 제1정간부터 제11정간까지의 선율인 ‘宮上一上二上一宮’과 완전히 일치한다[악보 17][악보 18].

악보 17. <강보> 21-22행과 <청산별곡> 3행 제1정간-제11정간의 악보 비교

강보 21-22행 (세종실록악보)	南 應 汰 應 南
청산별곡 3행 제1정간-제11정간 (시용향악보)	宮 上一 上一 上一 宮

악보 18. <강보> 21-22행과 <청산별곡> 3행 제1정간-제11정간의 선율비교

강보 21-22행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약보로 바꾼 악보	南 應 汰 應 南 宮上一上二上一宮
청산별곡 3행 제1정간-제11정간 (시용향악보)	宮上一上二上一宮

<강보> 23-26행의 선율은 ‘蕤南南姑蕤(오음약보로는 下一宮宮下二下一)’이다. 이는 <청산별곡> 5행의 제1정간부터 제8정간까지의 ‘下一宮宮’의 선율과 ‘蕤南南’의 선율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악보 19][악보 20].

악보 19. <강보> 23-26행과 <청산별곡> 5행 제1정간-제8정간의 악보 비교

강보 23-26행 (세종실록악보)	蕤 南 南 姑 蕤
청산별곡 5행 제1정간-제8정간 (시용향악보)	下一 宮 宮

악보 20. <강보> 23-26행과 <청산별곡> 5행 제1정간-제8정간의 선율비교

강보 23-26행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약보로 바꾼 악보	蕤 南 南 姑 蕤 下一宮宮下二下一
청산별곡 5행 제1정간-제8정간 (시용향악보)	下一宮宮

<강보> 27-29행 선율은 ‘蕤姑姑太(오음약보로는 下一下二下二三임)’이다. 이는 <청산별곡> 5행 제15정간부터 6행 제8정간까지의 선율인 ‘下一下二下三’의 선율을 발췌하였다고 할 수 있다[악보 21][악보 22].

악보 21. <강보> 27-29행과 <청산별곡> 5행 제15정간-6행 제8정간의 악보 비교

강보 27-29행 (세종실록악보)	蕤 姑 姑 太
청산별곡 5행 제15정간-6행 제8정간 (시용향악보)	下一 下二 下三

악보 22. <강보> 27-29행과 <청산별곡> 5행 제1정간-6행 제8정간의 선율 비교

강보 27-29행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약보로 바꾼 악보	蕤 姑 姑 太 下一下二下二三
청산별곡 5행 제15정간-6행 제8정간 (시용향악보)	下一下二 下三

<강보> 30행의 선율인 ‘姑蕤姑太(오음약보로는 下二下二下三임)’와 <청산별곡>의 7행 제6정간부터 16정간까지의 선율인 ‘下二下二下二下三’은 완전히 동일한 선율이다[악보 23][악보 24].

악보 23. <강보> 30행과 <청산별곡> 7행 제6정간-제16정간의 악보 비교

강보 30행 (세종실록악보)	姑	蕤	姑	太
청산별곡 7행 제6정간-제16정간 (시용향악보)	下二	下二	下二	下三

악보 24. <강보> 30행과 <청산별곡> 7행 제6정간-제16정간의 선율비교

강보 30행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약보로 바꾼 악보	姑 蕤 姑 太 下二下二下二下三
청산별곡 7행 제6정간-제16정간 (시용향악보)	下二下二下二下三

<강보> 31-32행은 <청산별곡>을 두 번째 반복하는 마지막 선율이다. <강보> 31-32행의 선율은 ‘應太太(오음약보로는 下四下三下三임)’이고, 이는 <청산별곡> 10행중의 제1정간부터 제12정간까지의 ‘下四下三下二下三’을 발췌한 것이다[악보 25][악보 26].

악보 25. <강보> 31-32행과 <청산별곡> 10행 제1정간-제12정간의 악보 비교

강보 31-32행 (세종실록악보)	應	太	太
청산별곡 10행 제1정간-제12정간 (시용향악보)	下四	下三	下三

악보 26. <강보> 31-32행과 <청산별곡> 10행 제1정간-제12정간의 선율비교

강보 31-32행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약보로 바꾼 악보	應 太 太 下四下三 下三
청산별곡 10행 (시용향악보)	下四下三下二下三

<강보> 33행부터는 다시 <강보>의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된다. <강보> 33-35행 제8정간의 선율은 ‘汰應南

(오음약보로는 上二上一宮)’이고, 이는 <청산별곡>의 1행 제9정간부터 제16정간의 선율인 ‘上二上一宮’과 동일하다[악보 27][악보 28].

악보 27. <강보> 33행-35행 제8정간과 <청산별곡> 1행 제9정간-제16정간의 악보 비교

강보 33-35행 제8정간 (세종실록악보)	汰	應	南
청산별곡 1행 제9정간-제16정간 (시용향악보)	上二	上一	上一宮

악보 28. <강보> 33-35행 제8정간과 <청산별곡> 1행 제9정간-16정간의 선율비교

강보 33-35행 제8정간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약보로 바꾼 악보	汰 應 南 上二上一宮
청산별곡 1행 제9정간-제16정간 (시용향악보)	上二上一宮

<강보> 35행 제9정간부터 38행 제8정간의 선율은 ‘應南應應(오음약보로는 上一宮上一上一임)’으로 <청산별곡> 2행의 선율인 ‘上一宮上一上一’과 완전히 일치한다[악보 29][악보 30].

악보 29. <강보> 35행 제9정간-38행 제8정간과 <청산별곡> 2행의 악보 비교

강보 35행 제9정간-38행 제8정간 (세종실록악보)	應	南	應	應
청산별곡 2행 (시용향악보)	上一	上一宮	上一	上一

악보 30. <강보> 35행 제9정간-38행 제8정간과 <청산별곡> 2행의 선율비교

강보 35행 제9정간-38행 제8정간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약보로 바꾼 악보	應 南 應 應 上一宮上一上一
청산별곡 2행 (시용향악보)	上一宮上一上一

<강보> 38행 제9정간-40행의 선율은 ‘南蕤蕤姑(오음약보로는 宮下一下二임)’으로 <청산별곡> 3행 제14정간부터 4행 제8정간까지의 선율인 ‘宮下一下二’와 완전히 일치한다[악보 31][악보 32].

악보 31. <강보> 38행 제9정간-40행과 <청산별곡> 3행 제14정간-4행 제8정간의 악보 비교

강보 38행 제9정간-40행 (세종실록악보)	南	蕤	蕤	姑
청산별곡 3행 제14정간-4행 제8정간 (시용향악보)	下	二	二	二

악보 32. <강보> 39-40행과 <청산별곡> 3행 제15정간-4행 제8정간의 선율비교

강보 38행 제9정간-40행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악보로 바꾼 악보	南蕤 蕤 姑 宮下-下-下二
청산별곡 3행 14정간-4행 제8정간 (시용향악보)	宮下-下-下二

<강보> 41행부터 44행의 선율은 ‘姑太姑蕤南(오음악보로는 下二下三下二下一宮)’로, <청산별곡> 6행 제1정간부터 7행 제5정간까지의 선율인 ‘下二下三下二下二下一宮’과 거의 일치하는 선율이다. <강보> 43행에서는 ‘姑(오음악보로는 下二임)’가 제1정간에 기보되어 있지만, 8정간에 걸쳐 연주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산별곡> 6행 제9정간과 14정간에 ‘下二’가 들어가 있어, 결국 <강보> 43행의 ‘姑’과 <청산별곡> 6행 제9정간과 14정간의 ‘下二’를 동일선율 지속으로 볼 수 있다[악보 33][악보 34].

악보 33. <강보> 41-44행과 <청산별곡> 6행-7행 제5정간의 악보 비교

강보 41-44행 (세종실록악보)	姑	太	姑	蕤	南
청산별곡 6행-7행 제5정간 (시용향악보)	下	二	二	二	宮

악보 34. <강보> 41-44행과 <청산별곡> 6행-7행 제5정간의 선율비교

강보 41-44행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악보로 바꾼 악보	姑 太 姑 蕤 南 下二下三下二 下一宮
청산별곡 6행-7행 제5정간 (시용향악보)	下二下三下二下一宮

<강보> 45-47행 제8정간은 ‘應蕤姑太姑(오음악보로는 上一下一下二下三下二임)’로 <청산별곡> 8행 제14

정간부터 9행 제12정간까지의 선율인 ‘宮下一下二下三下二’의 선율과 거의 유사하다[악보 35][악보 36].

악보 35. <강보> 45-47행 제8정간과 <청산별곡> 8행 제14정간-9행 제12정간의 악보 비교

강보 45-47행 제8정간 (세종실록악보)	應	蕤	姑	太	姑
청산별곡 8행 제14정간-9행 제12정간 (시용향악보)	宮	下一	下二	下三	下二

악보 36. <강보> 45-47행 제8정간과 <청산별곡> 8행 제14정간-9행 제12정간의 선율비교

강보 45-47행 제8정간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악보로 바꾼 악보	應 蕤 姑 太 姑 上一下一下二下三下二
청산별곡 8행 14정간-9행 제12정간 (시용향악보)	宮 下一下二下三下二

<강보> 47행 제9정간부터 48행의 ‘德備(오음악보로는 下四下五임)’의 선율은 <청산별곡>의 10행의 선율인 ‘下四下三下二下三下四下五’의 선율중 간음을 제외한 ‘下四’와 ‘下五’를 발취하였다. <강보>도 45행부터 48행까지를 보면, 고려향악곡인 <청산별곡>과 마찬가지로 ‘下一下二-下三-下四-下五’로 종지하는 하행종지형을 갖고 있다[악보 37][악보 38].

악보 37. <강보> 47행 제9정간-48행과 <청산별곡> 10행의 악보 비교

강보 47행 제9정간-48행 (세종실록악보)	德	備
청산별곡 10행 (시용향악보)	下四 下三 下二 下三 下四	下五

악보 38. <강보> 47행 제9정간-48행과 <청산별곡> 10행의 선율비교

강보 47행 제9정간-48행 - 세종실록악보 - 오음악보로 바꾼 악보	德 備 下四 下五
청산별곡 8행 14정간-9행 제11정간 (시용향악보)	下四下三下二下三下四下五

지금까지 <강보>와 <청산별곡>의 선율 관계를 연구해본 결과 <강보> 총 48행은 <청산별곡> 1행부터 10행까지의 선율을 세 번 반복하였고, <강보> 역시 총 48행의 선율이 1-16행, 17-32행, 33-48행의 세 단락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강보>와 <청산별곡>의 선율관계를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표 8. <강보>와 <청산별곡>의 선율 비교표

강보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	9행	10행	11행	12행	13행	14행	15행	16행
청산별곡	3-4행			5-7행						8-10행						

강보	17행	18행	19행	20행	21행	22행	23행	24행	25행	26행	27행	28행	29행	30행	31행	32행
청산별곡	1-2행			3행			5-7행						10행			

강보	33행	34행	35행	36행	37행	38행	39행	40행	41행	42행	43행	44행	45행	46행	47행	48행
청산별곡	1-2행			제8경간		제9경간		3-4행			5-7행			8-9행		10행

[표 8]의 <강보>와 <청산별곡>의 선율을 살펴보면, 세종 때 <발상> 중 <강보>는 고려향악곡인 <청산별곡>에서 발췌된 곡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세종이 고취악과 향악에 기하여 <정대업>, <보태평>, <발상>, <봉래의>를 만들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9], 실제 세종이 고려 향악인 <청산별곡>에서 선율을 발췌하여 <발상> 중의 <강보>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연하게 증명된다.

세종이 <정대업> 중의 <휴명>을 <청산별곡>에서 [7], <화태(和泰)>를 <서경별곡(西京別曲)>에서[5], <보태평>중의 <형광(亨光)>을 <귀호곡(歸乎曲)>[13]에서, <보예(保乂)>를 <야심사(夜深詞)>[14]에서 발췌하여 신악을 창제하였던 것처럼, <발상> 중의 <강보>도 고려향악인 <청산별곡>에 근거하여 창제하였음을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청산별곡(靑山別曲)>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로 『악장가사(樂章歌詞)』, 『악학편고(樂學便考)』에 악보 없이 8연의 가사가 전하고, 『시용향악보

(時用鄉樂譜)』에 악보와 함께 가사 제1연이 전한다.

<청산별곡>은 고려의 <대곡>, 조선의 <납씨가>, <휴명>, <종유>, <경근지곡> 등에서 선율이 발췌되거나, 조(調)가 바뀌고, 악곡의 길이가 증가되는 등 다양하게 변모되어 전승되었다.

즉 <강보>와 <청산별곡>의 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48행의 <강보>는 10행의 <청산별곡>을 세 번 반복하였는데, <강보>의 1-16행, 17-32행, 33-48행이 그 세 부분이다. <청산별곡>과 <강보>의 선율비교 결과 거의 선율이 같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세종 때 <발상> 중의 <강보>가 고려 <청산별곡>을 발췌하여 신악으로 창제되었음을 이 연구에서 밝혀냈다.

그동안 문헌에만 기록되어있고, 연주가 전승되지 않아 <발상>의 음악을 전혀 알 수 없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발상>의 연주 재현이 가능해졌다. 왜냐하면 <강보>와 관련이 있는 <청산별곡>이 현재 재현되어 연주되고 있으므로, <청산별곡>의 연주에 비추어 이 연구를 토대로 <강보>의 연주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15][16].

세종 때의 <발상> 음악과 고려 음악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발상>의 나머지 악곡들에 대한 고려음악의 전승 고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1] 『樂章歌詞』
- [2] 『樂學便考』
- [3] 『時用鄉樂譜』
- [4] 張師助, 國樂論攷, 서울大學校出版部, p.72, 1980.
- [5] 장사훈, 증보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p.276, 1986.
- [6] 李惠求, 韓國音樂論叢, 秀文堂, pp.55-70, 1976.
- [7] 이혜구역주, 세종장헌대왕실록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206-207, 1973.
- [8] 『世宗實錄』

- [9] 송방송, "조선왕조 건국초기의 정재사(呈才史) 연구", 민족과 음악, 제23호, pp.193-232, 2002.
- [10] 신대철, "세종대 이후 연산군대의 향악과 당악", 한국음악연구, 제29집, pp.99-100, 2001.
- [11] 정경란, "고려 청산별곡(靑山別曲)의 현대적 습용(襲用)", 고조선단군학, 제26호, pp.384-387, 2012.
- [12] 국립국악원, 한국음악학자자료총서 제20집, pp.79-80, 1986.
- [13] 정경란, "고려 <귀호곡>과 종묘제례악 <형가>의 관계", 국악원논문집, 제26집, pp.291-323, 2013.
- [14] 정경란, "고려 야심사의 조선 종묘제례악 전승", 人文科學, 제96집, pp.141-184, 2012.
- [15] 서은숙, "한국문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 pp.417-427, 2009.
- [16] 김지원, 류지성, "전통춤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문화예술정책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9호, pp.156-171, 2012.

저 자 소 개

정 경 란(Kyung Rhan Chung)

정희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학사)
- 1988년 8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과 음악학 전공(문학석사)
- 2011년 8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과 음악학 전공(문학박사)
- 1989년 10월 ~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고려 및 조선시대 음악학